CHUNGO 48th Class Golden 50th Anniversary (1976-2026) [이전 기록을 잘 보호해 주세요**.]**

[김제창 3.31(화) 14:19]
(YouTube) K-우정 - 50년의 공명 | 448명의 연대기 (춘천고등학교 48회)
보고 싶은 병우야, 춘천고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어제 밤에 춘천고 48회 졸업생 448명의 자부심을 공명시켜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1분 26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었는데, 그 안에 너가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네가 활짝 웃는 얼굴(아래 사진)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슬쩍 지나가듯이 삽입했는데,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고 흡족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. 네가 별이 된 지도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는 데, 아직도 너는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하고 함께 있고, 나에게 영감을 주면서 너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느낀단다. 이 영상은 내일 쯤 부터 구글 애즈 캠페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 106개국으로 확산될 텐데, 그 영상을 통해 너의 활짝웃는 얼굴과 영혼의 진동이 함께 전 세계 사람들 가슴에 가 닿아서, 중동전쟁으로 불안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다.

[김제창 **3.28(**토**) 12:48]** 보고 싶은 병우**!!**



[김제창 3.17(화) 11:21] 헤어진 지 50년이 다 되었는 데도 지금도 보고싶은 그리운 친구 병우야, 올해 2026년 우리 춘고 48회가 졸업 50주년을 맞는 해이어서, 춘고 친구들 447명의 개인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개인기록원을 만들면서, 한재영 친구가 공유해준 사진 맨 앞에 병우 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단다. 고 2때, 너가 나에게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“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.”고 고백을 해주었던 순간, 그리고 함께 탁구를 치면서 즐거웠던 순간들, 우리 집에서 함께 밤을 새우면서 시험공부했던 기억들.. 너가 네 조연주(?)라는 이름의 네 여자친구 자랑하던 기억들..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지나간 옛일이건만 아직도 너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게 내 뇌리속에 남아있단다. 너가 간염이 있어서 오래 못 살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지, 그리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너는 밤하늘의 별이 되었더구나. 내가 어느날 너희 집에 찾아가서 “병우 있어요?”하고 너희 어머니께 여쭈었더니,”병우 죽었다”고 무덤덤하게 말씀 하시던 그 장면,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말문이 박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황망하게 발길을 되돌렸었단다. 그때 왜 너의 묘소에 한 번 가볼 엄두를 못내었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게 지금도 내 마음 속에 너에 대한 미안한 숙제로 남아있단다. 그래도 오늘 울컥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너에게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단다. 병우야 너와 헤어진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너를 참 보고 싶다. 그리고 너는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단다. 네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. 항상 행복해라. 너의 베프 제창이가



